

“김도영, 내년엔 다치면 안돼”

KIA 김중국 감독 “부상방지 가장 중요” 주의 당부
올해 시범경기 타율 1위 불구 시즌 돌입하자 부진



“자주 다치면 안된다.”
KIA 타이거즈 김중국 감독의 입에서 아쉬움 섞인 엄명이었다. 2022 루키 김도영

(19)이 자질구레한 부상 때문에 자주 발목이 잡힌다는 것이었다. 김도영은 시즌을 마치면 호주 질롱코리아

에 참가하기로 결정났다. 시즌 중에는 백업 선수로 뛰는 타격만 타격을 못했다. 질롱 코리아에서는 마음껏 뛰고 마음껏 방망이를 돌릴 수 있었다. 겨우내 실전 경험을 쌓으면 타격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또 한 명의 유망주 김석환, 신인 투수 최지민과 함께였다. 그러나 돌연 김도영이 아닌 제주 마무리 캡트 탭 김규성이 호주에 갔다. 이유는 발가락 통증이었다.

구단은 “시즌 막판 발가락에 부상을 입었는데 통증이 남아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무리할 필요 없다고 판단해 김규성으로 대체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영은 결국 호주에서 뛰지 못하고 합편에서 재활훈련을 했다.

김도영은 시즌 중에는 손가락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8월 17일 SSG 랜더스와 경기에서 3루수로 나서 2회초 라가레스의 강한 타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공을 맞았다. 피가 흘렀고 열 바늘을 꿰맸다.

결국 다음날(18일) 엔트리에서 빠졌고, 23일 동안 이탈했다. 전반기 부진을 딛고 후반 타격기세를 올리던 시점이었다. 팀에게도 백업 3루수이자 대주자 요원으로 요긴했던 김도영 공백은 뼈아팠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스프링캠프 출발전에 서지 못했다. 코로나19 이슈에 발목이 잡혔다. 고교 3학년이었던 작년에는 10월 멕시코 U-23 야구월드컵에서 주루 도중 왼쪽 어깨 부상을 입었다. 합편 마무리 캡트에서 타격훈련을 못했고 재활과 수비훈련만 했다.

김도영은 올해 시범경기 타율 1위의 기염을 토하며 천재루키 평가를 받았다. 막상 시즌에 돌입하자 상대투수의 전력투구와 스피드 변화구에 막혀 부진에 빠졌다. 7월부터는 조금씩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상 기간을 제외하면 1군에만 있었다.

시즌 103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3푼7리, 3홈런, 19타점, 37득점, 13도루의 성적을 기록했다. 내년에는 주전에 도전한다. 민첩한 주루에 수비도 안정된 만큼 타격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다만, 부상이 없어야 가능한 일이다. 김중국 감독도 “자주 다치면 안된다. 내년엔 빠지지 않고 풀타임을 위해서는 부상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몸이 성적이고 몸이 돈이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슬비기자

추신수, 내년에도 SSG에서 뛰다... 연봉 17억 재계약

2021년 KBO리그 입성해 3년 연속 동행...샐러리캡 고려해 연봉 10억 삭감

‘추추 트레인’ 추신수(40)가 내년에도 SSG 랜더스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빈다.

SSG 구단은 5일 추신수와 연봉 17억원에 2023시즌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추신수는 내년 시즌부터 적용되는 KBO리그 샐러리캡 제도를 고려해 입단 첫해부터 유지한 연봉 27억원을 10억원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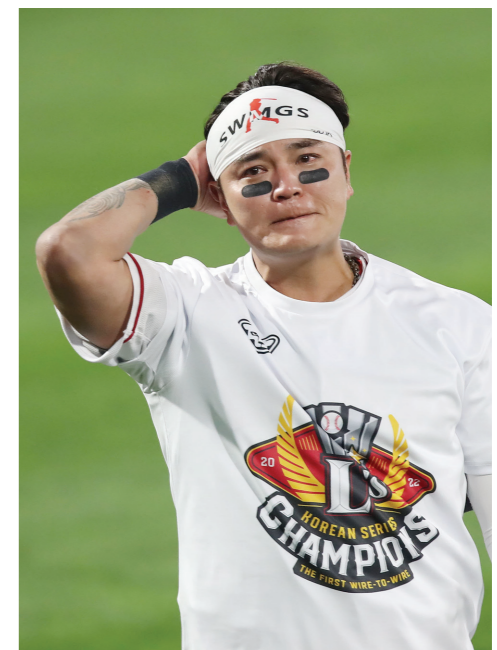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16시즌을 뛴 추신수는 2021시즌 전 전격 KBO리그행을 결정하고 SSG와 계약하면서 연봉 27억원을 받았다. 올해에도 추신수의 연봉은 27억원이었다.

올해 SSG에서 통합 우승을 맞은 추신수는 한국시리즈 우승 뒤 현역 연장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결국 내년에도 선수로 뛰기로 했다.

2021시즌을 마친 뒤 팔꿈치 수술을 받은 추신수는 재활의 시간을 이겨내고 정규시즌에 112경기에 출전, 타율 0.259 16홈런에 출루율 0.382, OPS(출루율+장타율) 0.812를 기록하며 SSG 리더오프로써 제 몫을 했다.

특히 한국시리즈 6경기에서 타율 0.320에 출루율 0.414로 활발한 공격력을 선보여 SSG의 통합 우승에 힘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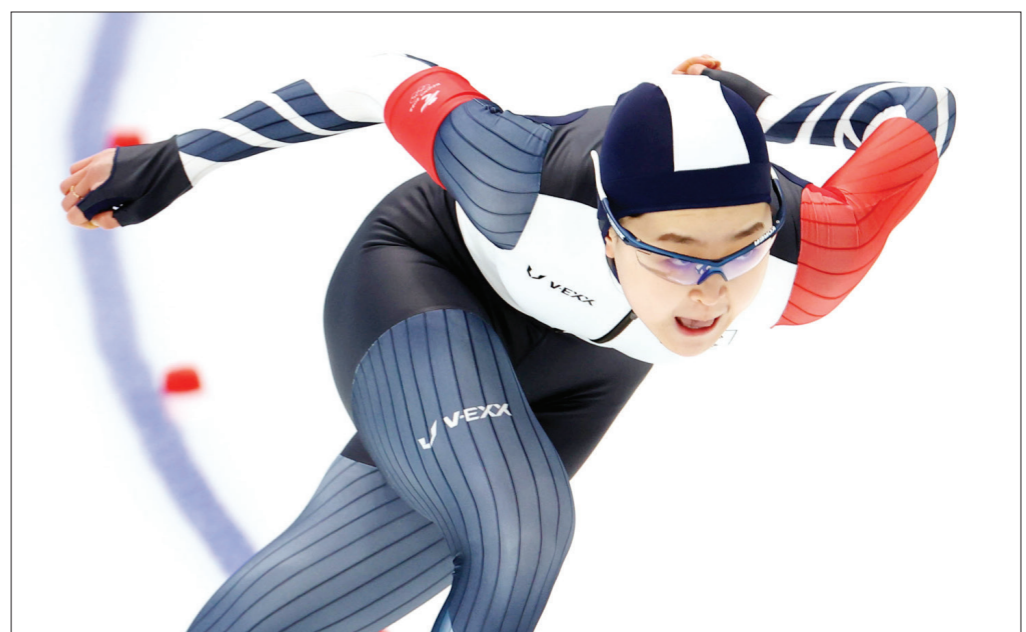
빅리그 시절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던 추신수는 KBO리그 무대에서 처음 우승 반지를 낀 뒤 크게 감격하며 눈물을 숨기지



못했다.

SSG는 “추신수가 야구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철저한 자기관리로 내년 시즌에도 팀의 중추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즌을 마친 뒤 자택이 있는 미국 텍사스주 로 돌아간 추신수는 내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되는 스프링캠프 일정에 맞춰 팀에 합류한다.



‘새 빙속여제’ 김민선, 4대륙선수권 1000m 금 ‘2관왕’

500m 이어 1000m서도 우승
‘팀추월 금’ 정재원도 2관왕

새로운 ‘빙속여제’ 김민선(23·의정부시청)이 4대륙선수권대회 여자 500m에 이어 1000m에서도 정상에 섰다.

김민선은 5일(한국시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4대륙선수권대회 여자 1000m에서 1분16초066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지난 3일 벌어진 500m에서 금메달을 딴 김민선은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8조 아웃코스에서 스타트를 끊은 김민선은 첫 200m를 17초97로 통과했다. 전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김민선은 스피드를 끌어올려 이후 400m 구간을 27초77로 질주, 600m 지점을 45초74로 통과했다. 600m 통과 지점 기록이 1위였던 김민선은 나머지 400m에서도 속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가장 빠른 기록을 냈다.

김민선은 1분16초191로 2위에 오른 예카테리나 아이도바(카자흐스탄)을 0.125초 차로 제쳤다.

올 시즌 김민선은 나서는 대회마다 금빛 주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2022-2023 ISU 월드컵 1차 대회에서 500m 금메달, 1000m 은메달을 따냈다. 이어진 월드컵 2차 대회에서도 500m 금메달을 수확하며 새로운 빙속 여제로 떠올랐다.

이번 대회 2관왕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김민선은 오는 9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개막하는 월드컵 3차 대회에 출격한다.

정재원(의정부시청), 임천호(스포츠포드), 양호준(의정부고)이 호흡을 맞춘 남자 팀추월은 3분47초172로 5개 팀 중 1위에 올랐다.

남자 매스스타트 정상에 섰던 정재원은 2관왕을 차지했다.

남자 1000m에서는 박성현(의정부시청)이 1분09초838로 은메달을, 김태윤(서울시청)이 1분10초252로 동메달을 수확했다.

황현선(전북도청), 박채원(한국체대), 박지우(강원도청)가 팀을 이룬 여자 팀추월은 3분11초273으로 4개 팀 중 3위에 자리했다.

4대륙선수권대회는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로, 2019-2020시즌부터 치러졌다.

2020-2021시즌 이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으나 2021-2022시즌부터 재개됐다.

손흥민, 레알 마드리드 가나...스페인 언론서 이적설

레알 마드리드, 손흥민을 잠재적 옵션으로 두고 공격진 개편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설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영국 스포츠매체 더부트럼은 4일 레알 마드리드 소식을 다루는 스페인 매체 데펜사 센트럴의 보도를 인용하며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진을 개편하기 위해 손흥민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손흥민이 연장기간 동안 포르투갈을 상대로 보여준 모습에 깊이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에 대한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은 최근 들어 부쩍 더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매

체는 “레알 마드리드는 손흥민이 월드컵에 없는 동안 그를 더 면밀히 관찰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잠재적인 옵션으로 보고 공격진을 새롭게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토트넘이 손흥민을 매각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마우라시오 포체티노 전 토트넘 감독은 지난달 각종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눈에 띄게 성장한 환상적인 선수”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매체는 “손흥민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얼마나 많이 바라는가에 달려있다”며 “그는 내년엔 31살이 된다. 그래서 베르나베우(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술 광고 안해’ 음바페, 버드와이저 로고 숨기고 기념사진

트로피 하단에 새겨진 버드와이저 로고 안 보이게 들고 사진 남겨

프랑스 축구대표팀을 8강으로 이끈 킬리안 음바페(PG)가 ‘조금은 다른’ 최우수선수 기념 사진을 남겼다.

음바페는 5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알 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2골 1도움으로 활약했다.

음바페를 앞세운 프랑스는 폴란드를 3-1로 물리치고 16강에 안착했다.

경기 후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정하는 경기 최우수선수(POTM·Player of the Match)도 당연히 음바페의 몫이었다.

눈길을 끄는 건 최우수선수로 뽑힌 뒤 찍은 음바페의 기념 사진이다.

최우수선수들은 대회 스폰서인 버드와이저가 새겨진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남긴다.

그런데 사진 속 음바페는 버드와이저 로고가 보이지 않도록 트로피를 뒤로 돌려서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트로피 하단에 새겨진 로고를 보이게 들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음바페는 월드컵에서 주류 홍보를 피하기 위해 사진에서 버드와이

저의 상표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전했다.

음바페의 이러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별리그 호주전과 덴마크전에서도 최우수선수로 뽑혔던 그는 당시에도 버드와이저 로고가 보이지 않도록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매체는 “음바페는 주류나 스포츠 베빙, 패스트푸드 등의 광고도 하지 않는다”면서 “프랑스 어린이들의 롤모델이 된 그는 버드와이저와 같은 술을 홍보해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었다.

한편, 음바페는 이번 대회에서 5골을 터뜨려 득점왕을 정조준하고 있다.

히어로 월드 챌린지 선전 임성재, 세계랭킹 19위 도약

김주형 15위·이경훈 37위

임성재(24)가 세계랭킹 20위권에 재진입했다.

5일(한국시간) 남자 골프 세계랭킹이 발표됐다. 임성재는 지난주 21위에서 19위로 뛰어 올랐다.

임성재는 5일 막을 내린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서 공동 8위에 올라 랭킹이 소폭 상승했다. 김주형(20)은 15위를 유지했다. 김주형은 히

어로 월드 챌린지에서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경훈(31)은 37위 자리를 지켰고, 김시우(27)는 79위로 하락했다.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은 12위에서 9위로 뛰어올랐다.

로리 매클로이(북아일랜드)는 여전히 1위를 지켰고, 스코트 셰플러(미국), 캐머런 스미스(호주)는 2, 3위를 유지했다.